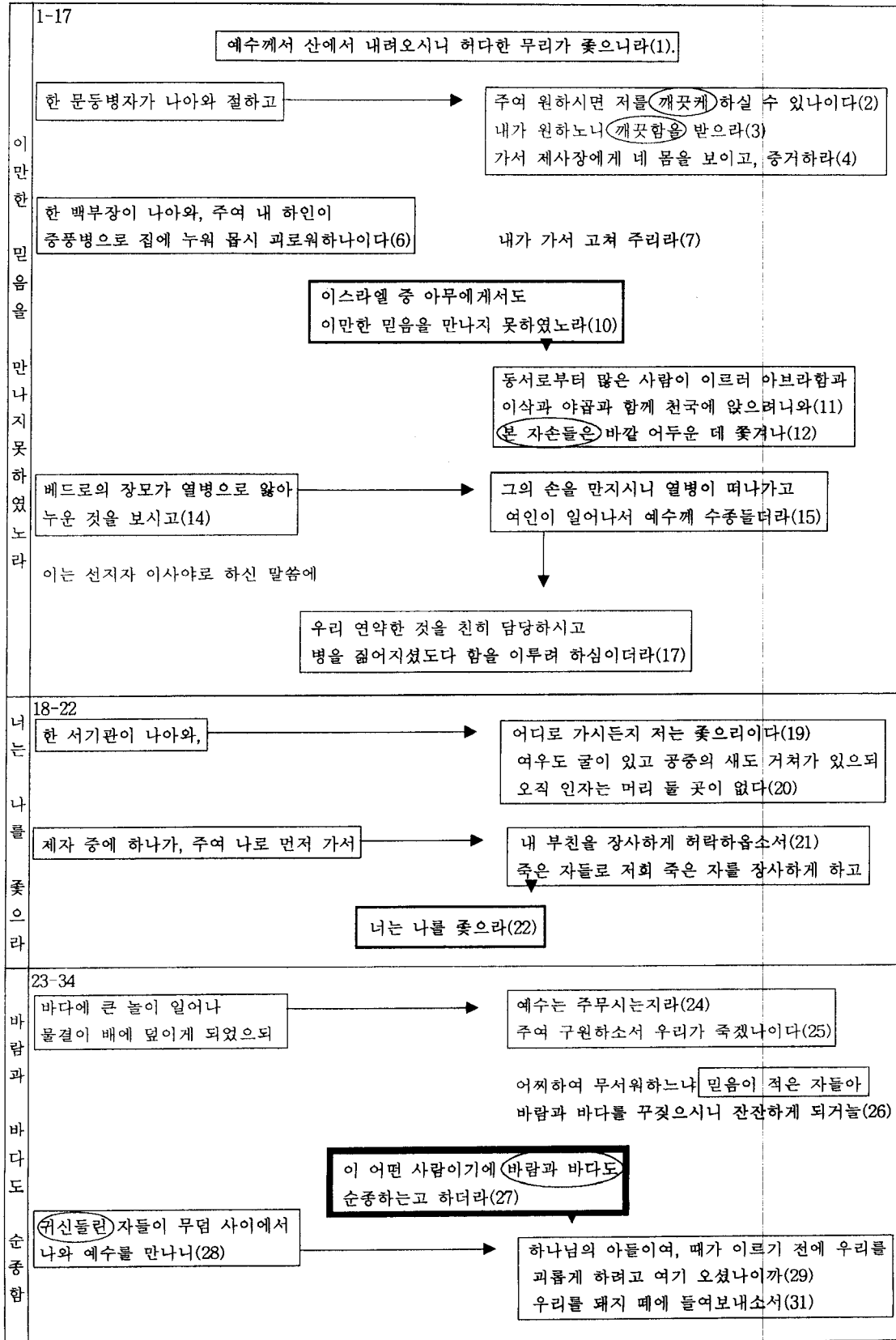


마태복음 8장 개관도표
주제 :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마태복음 8장,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가?

요절 : 11-12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8-9장은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8:1) 행하신 행적(行蹟)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설교(5-7장)가 말씀사역이라면, 8-9장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 기자가 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며, 이 기사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기만 하면 당신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그가 누구인가”를 증거하여 확신케 하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도가, 앞 부분은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고, 뒷부분은 “그 분이 왜 오셨는가”를 증거하는 구도(構圖)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8장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도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8)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27) 하고, 심지어 귀신들린 자까지도 “하나님의 아들”(29)이심을 알고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12)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최우선적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10),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13) 하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8장의 핵심도 “천국에 앉으려니와”(11) 한, “천국”(天國)에 있습니다.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 첫째 단원(1-17) 이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 둘째 단원(18-22) 너는 나를 좃으라
- 셋째 단원(23-34) 바람과 바다도 순종함

첫째 단원(1-17) 이 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1-2).

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1상) 합니다.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의 오묘한 진리를 말씀하시고는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17:9절에서도,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하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17:4) 하고 산 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였으나 주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그보다 앞서 왜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셔야만 했는가?

②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에는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자”를 만나셨고, 설교산상에서 내려오시자 첫 번으로 만난 자는 “한 문둥병자”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모세를 대적한 미리암(민 12:10)과, 엘리사를 속인 게하시(왕하 5:27), 교만해진 웃시야 왕(대하 26:19)에게 문둥병이 발한 사실 등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둥병만큼 죄의 특

성을 잘 나타내는 병도 없다 하겠습니까. 문둥병은 잠복기간이 길어서 얼른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비참함이란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가족들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③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2-3) 합니다. 주님은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4) 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시는가? 레위기 13장은 문둥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레 13:9-10) 합니다. 그를 문둥병자로 진단하여 추방을 한 것은 제사장입니다. 그에게 가서 문둥병이 “깨끗하여졌음”을 확인을 받아야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증거하라”(4하) 하십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문둥병이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하여졌느냐? 너를 깨끗케 한 사람은 누구냐?”.

④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를 문둥병자로 진단(診斷)을 내려 추방하는 일을 할 뿐, 깨끗케 하여 돌아오게 해주지를 못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자 왕은 말했습니다.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왕하 5:7).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가 없느니라”(히 10:1). 율법은 그를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격리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을 내 밀어 저에게 대셨습니다”(3상). 그리고 깨끗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심으로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를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⑤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4중 적인 “증거”(證據)가 있습니다. ㉠ 길 예비자 요한의 증거(3:11, 요 5:33)가 있습니다. ㉡ 주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요 5:36, 행 2:22, 히 2:4)이 하나님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구약성경(1:22, 요 5:39)이 증거합니다. ㉣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3:17, 요 5:37) 증거하셨습니다. 그래도 “증거”가 부족하단 말인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5-6).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7) 하십니다.

② 그런데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삽나이다”(8)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좃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10) 하십니다. 백부장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8)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믿음입니다. ㉡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한, 주님이 누구인가를 안 믿음입니다.

③ “문둥병과, 중풍병”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분명해졌습니다. ㉠ 주님이 누구인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첫째가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고 묻자 주님은 “하나님

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8-29)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 자신이 “문둥병자요, 중풍병자”, 즉 죄인임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9:12),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요 9:41). 이점이 다음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④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하십니다.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론하시는 의중이 무엇인가? ㉡ 자신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행 3:25)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주님을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하심은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라의 본(本)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12) 하십니다. 이런 일은 엘리야 때도 사렙다의 과부는 믿었으나 이스라엘은 믿지를 았았고, 엘리사 때에도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 믿었으나 이스라엘은 믿지 았았습니다(눅 4:25-27). 주님께서 이를 상기시키자 저들은 분이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으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멸망하리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도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은 쫓겨나리라

①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14-15).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16) 합니다.

②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17) 합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치유기사(문둥병, 중풍병, 열병)의 작은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심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35:5-6) 하고,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③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만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병도 짊어지시고 죄도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양 말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게 되면 병이 낫지 았을 경우, “단번에 온전케 하신”(히 10:10-14) 구속사역까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마태의 인용에 잘못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영경귀를 내듯이, 모든 질병은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사 53:4) 하고 예언한 것을, 상황(狀況)에 따라 “우리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고 좁은 의미로 인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사이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④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 이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눅 7:18-22) 하고, “병 고침과, 복음”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아서 예수가 “오실 이”,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바는 병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는 “믿음”입니다.

둘째 단원(18-22) 너는 나를 좇으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18).

①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19) 합니다. 주님의 반응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좇으리이다” 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20). 그렇다면 이는 “좇으라”는 뜻인가? 아니면 좇지 말라는 말씀인가? “저는 좇으리이다”는 명제는 생각보다 중요한 명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는 좇으리이다” 하고 말하는 신앙고백입니다. 목회자로 지망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좇으리이다”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경우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경우, 즉 지도자들에게 해당된다 하겠습니까.

③ 참으로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저는 좇으리이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이러 저러한 신학교가 많은 것은 “저는 좇으리이다” 하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중국에 진출해있는 선교사들의 사명은 현지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일입니다. 그들 주변에 “저는 좇으리이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들을 어디서 모집을 합니까? 답변은, 쌓이고 쌓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눈물이 날일입니다. 그리고 부언 하는 말이 생활수준이 높아졌을 때도 목회를 지망하는 자가 이렇게 많을 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④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를 검증하게 합니다. “나를 좇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그래도 좇겠느냐”는 무언의 반문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이 어떤 동기에서 “저는 좇으리이다” 하고 말했을까?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요 2:23-24) 합니다. 표적을 보고 따른 것이라면 고난을 만나면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⑤ 주님은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배척을 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 서기관이 끌고다까지도 좇겠다는 말인가? 주님은,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않겠느냐”(눅 14:28)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가? 건물을 짓다가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한 불품 없는 모습을 본적이 있으시겠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딤후 4:10)고 말씀하는데, 그는 비용을 예산해보지 않고 망대를 착공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서기관을 얼른 환영하셨다면 “저는 좇으리이다” 하고는 중도하차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⑥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21) 합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9:57-62절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나로 먼저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고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어떤 제자”의 “주를 좇음”, 즉 제자도(弟子道)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제자의 길이 고난과 죽음까지도 불사(不辭)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임을 모르고 있고, 또 다른 제자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4) 하는 절대복종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눅 9:62)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합격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셋째 단원(23-34) 바람과 바다도 순종함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좇았더니”(23).

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24).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27). 이어지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29) 하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려는 첫째는, ㉠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그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15-16)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둘째는, ㉡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26) 하신 말씀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제자들에 대한 “믿음”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만 바로 알고, 믿기만 한다면 신앙의 기초는 놓여진 것이라 하겠습니까.

② 이 말씀을 앞의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바람과 바다”도 주님이 누구인가를, ㉠ 알고, 순종하는데, ㉡ “나라의 본 자손들”(12)과, “제자”(21)는 알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28). 그 귀신들을 때지 때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바다에서 몰살하게 한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인가? 변함 없이 첫째는, ㉠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29상) 합니다. 귀신들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 인줄 알고자 하느냐”(약 2:19-20) 하고 형식적인 신앙을 책망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은 아닐까요? 둘째는, ㉡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29하) 한 말 속에 나타납니다. 귀신은 주님이 누구인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오셨는가 하는 사명까지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서 예고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즉 사탄을 정복하러 오셨다는 점입니다.

②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여기 오셨나이까”(29하)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정복당하게 되는 “때”란 언제인가? 이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재림으로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짐”(계 20:10)을 받게 되는 때(계 12:12)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때가 더디다고 말하나(벧후 3:9), 사탄은 너무 빠르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③ 8장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1) 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산아래”로만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문둥병, 중풍병, 열병, 광풍,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어두움의 영”이 주관하는 낮은 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포로 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시 2:9) 하심 같이 악한 사탄의 권세를 정복해나가셨던 것입니다.

